



NEWS LETTE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3년 3월 (2호)

발행인 : 황 태 곤 / 편집인 : 김 준 철 / 편집위원 : 김진호 · 김현우 · 서성일 · 이승주 · 김상훈 / 발행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목 차

- 방광암 주민강좌 / 2
- 2002 추계 학술대회 / 2
- 제6회 동문학술대회 및 송년회 / 3
- 2003년 신년하례식 / 3
- 전문의 시험 소식 / 3
- 입국식 및 사은회 / 4
-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장 절제술 100례 기념식 / 4
- Asami Ariyoshi 교수님의 정년퇴임식 소식 / 4
- 학위 수여식 / 5
- 각종 학회 학술상 수상 / 5
- 한국요로생식기감염학회 창립총회 / 5
- 동문회 경조사 / 6
- 해외연수 및 학회참가 소식 / 6
- 교실 staff 인사 이동 / 7
- 교실 홈페이지 안내 / 7
- 전공의 수련을 마치며... / 8
-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보면서... / 9
- 2003년도 신입 비뇨기과 전공의 / 10
- 2003년 가톨릭대학교 비뇨기과 전공의 근무표 / 11

News Letter

Catholic University



방광암 주민강좌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암 일찍 발견하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일반인을 위한 암 심포지엄을 가톨릭 암센터와 함께 2002년 10월 23일 8개 병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 강좌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했지만, 방광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진단법, 치료법 등을 재미있는 그림들과 함께 설명을 하여 방광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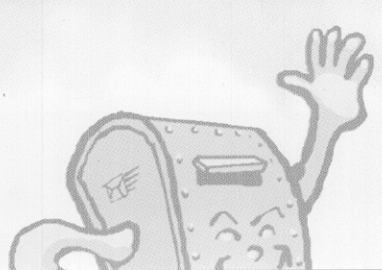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펼쳐진 강좌에서 환자들만이 아닌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질병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모 및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뜻 깊은 강좌였습니다.

2002 추계 학술대회

2002년 11월20일 양자강에서 2002 추계학술대회를 결산하는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학회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던 자리였지만, 학회에서 타 병원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학회 이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직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질문이나 의견 개진이 미숙하다는 자성의 의견이 있었고, 초록 작성을 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학회 이후에 논문 의로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case도 추적검사나 체계적인 chart정리를 통해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8개 병원의 공통적인 check list를 만들어서 추후의 study를 위한 data축적도 도움이 되겠다는 많은 발전적인 의견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많은 의견 제시와 열띤 토론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을 기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2002년 12월14일 팔래스 호텔 12층 라일락 룸에서 제6회 가톨릭의대 비뇨기과 동문학술대회 및 송년회가 거행되었습니다.

부평 성모자애병원의 마취과 이철우 교수님께서 "What is IMS?"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고 이승주, 김진호, 김현우, 서성일 동문들의 요도염과 음경확대술, 발기부전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성원으로 역대 동문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셔서 양으로나 질로나 풍성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6회 동문학술대회 및 송년회

2003년도 신년하례식이 1월 2일 한국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8개 병원의 교직원들과 전공의들이 참여하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간의 덕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1년동안의 계획과 교실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3년 1월 9일 과 23-24일 두 차례에 걸쳐 제 46회 전문의 자격고시가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전공의 4년차 8명이 응시하였고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 중 김두배 선생은 랜턴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여 다시 한번 교실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새로 전문의가 된 김두배, 정기욱, 하재성, 임필빈, 정웅교, 고준성, 최아람, 인병하 선생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신년하례식

전문의 시험 소식

입국식 및 사은회

2003년 신규 전공의 입국식 및 사은회가 2003년 2월 7일 팔레스 호텔 궁전홀에서 열렸습니다. 8개 병원 교실원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많은 개원



동문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규 전공의 및 신규 전문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교실의 가족이 된 류기영, 이준하, 최현섭, 유재석, 양조환, 박덕진, 석노성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장 절제술 100례 기념식



2003년 2월 20일 목요일 가톨릭 의과학 연구원 1002호에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장 절제술 100례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내 비뇨기계 복강경 수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강남성모병원에서 2000년 2월 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100례가 되어오면서 신장 기증자의 술후 통증, 재원기간 및 미용면에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뇨기와 교실원, 장기 이식 센터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백 번째 신장 기증자가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의 의미를 한층 깊게 해주었습니다.

Asami Ariyoshi 교수님의 정년퇴임식 소식

본 교실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일본의 후쿠오카의대 비뇨기과 교실의 Asami Ariyoshi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이 2003년 2월 22일 후쿠오카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후쿠오카의대 비뇨기과학교실의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실의 발전을 이끈 뒤, 은퇴하시는 자리에는 본 교실의 황태곤 주임교수님과 박용현 교수님, 윤문수 교수님, 조용현 교수님이 참석하시어 축하의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 2003년 2월 21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윤태경 전공의 3년차(지도: 조용현 교수)
Anti-inflammatory effect of vitamin A for renal scarring
in pyelonephritis rats model
- 정지학 전공의 3년차(지도: 조용현 교수)
17- β estradiol로 유발시킨 비세균성 전립선염 흰쥐 모델에서 피나스
테라이드 효과

10월 5일 유성에서 거행된 2002년 배뇨장애 학회에서 김준철 조교수가 "빈뇨 및 절박뇨가 요내 Nerve growth factor와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1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란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공의 4년차 하재성 선생이 10월 19일 거행된 2002년 대한 전립선학회에서 대한 비뇨기과학회지 2002년 5월호에 게재된 "만성 골반통 증후군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이용한 잠복 미생물의 검출" 이란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도: 조용현교수).

전공의 3년차 황보 경 선생이 10월 26일 거행된 2002년 대한 Endourology학회에서 "손을 이용한 복강경하 공여신 적출술: 개복에 의한공여신적출술과의 비교"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도: 황태곤 교수).

Korean Association of Urogenital Tract Infection (KAUTI)

- 일 시 : 2003년 3월 28일
- 장 소 : 미정

우리나라에 요로생식기감염에 대한 전문학회가 창설됩니다. 요로생식기감염은 의원이나 병원 급을 막론하여 우리 비뇨기과의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분야의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기초지식도 미약하여 학문적으로 명확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 조용현교수를 중심으로 요로생식기감염의 연구에 뜻을 같이하였던 비뇨기과의사들이 4년전 요로감염연구회를 창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정식 학회로 창립

학위 수여식

각종 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요로생식기감염학회 창립총회

동문회 경조사

해외연수 및 학회참가 소식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로생식기감염에 대한 기초 및 임상적 연구의 활성화, 각종 의료정보의 교환, 실제 임상에서 요로생식기감염 질환을 취급할수 있는 적극적 방법의 제시 및 보급, 요로생식감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보건 정책의 건의,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 학회에 관한 문의 : 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과 이승주 (총무)

전 화 : 02-3779-2236 팩 스 : 02-761-1626

Home : www.uti.or.kr

E-mail : seungju@catholic.ac.kr /

webmaster@uti.or.kr

- 2002. 10. 12. 김효신 전공의 1년차 결혼
- 2002. 10. 27. 방진성 동문 부친상
- 2002. 11. 01. 조대행 교수 빙부상
- 2002. 11. 27. 김상훈 동문 부친상
- 2002. 12. 15. 윤문수 교수 부친상
- 2002. 12. 29. 이동환 교수 장모상
- 2003. 01. 24. 이충현 전공의 조모상
- 2003. 02. 17. 김현우 교수 모친상
- 2003. 02. 12. 이윤보 교수 득녀

● The 8th Western Pacific Congress on Chemotherapy and Infectious Diseases

- 일 시 : December 15, 2002
- 장 소 : Australia Perth
- Symposium title : STD in the Western Pacific
- 특강제목 : Epidemiology and management of gonococcal infection
- 강 사 : 조용현 교수

● Meeting of European Society of Infections in Urology (ESIU)

- 일 시 : January 24-26, 2003
- 장 소 : Budapest, Hungary
- 참석자 : 조용현 교수

● International Children's Continence Society &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Urologists Join Meeting

- 일 시 : December 10-13, 2002
- 장 소 : Hong Kong, China
- 참석자 : 조대행 교수, 서홍진 조교수

● The 5th International tissue Engineering society

- 일 시 : December 8-10, 2002
- 장 소 : Chiba, Japan
- 참석자 : 이지열 조교수

● 신규임용

이용석 전임강사(의정부 성모병원)
고준성(부천성가병원)
김두배(대전성모병원)
임필빈 임상강사(강남성모병원)

● 승진

강성학 부교수 → 교수
김준철 조교수 → 부교수

● 퇴직

김중호 전임강사(부천성가병원)
이주현 전임강사(대전성모병원)

교실 staff 인사 이동

교실 홈페이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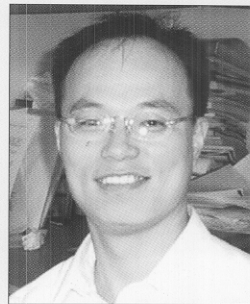
<http://cmc.cuk.ac.kr/uro>

2002년 3월 13일 처음 문을 연 저희 비뇨기과 교실 홈페이지가 벌써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동문들, 교실원들, 전공의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면적인 개편을 계획 중이며,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문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던지 메일(seungju@catholic.ac.kr)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며..

‘세월은 유수와 같다’ 고 했다.

마찬가지로 병원생활도 그러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문의가 되었다. 그사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수련을 했으며 각각 부속병원에서의 배움점이 많았다. 소수술의 주도적 참여, 개업의에게 필요한 procedure의 습득 및 환자 case의 다양성 등. 그러나 마음 한곳엔 공허함도 깊게 자리하고 있음은 또 웬 연유인가? 아마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련생활을 못했다는 아쉬움일 것이다.



김 두 배
(전공의 4년차)

그렇다. 서두에 언급한 세월의 빠름은 지나고 생각하면 금방이었지만 그 사이 하루하루는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었으니... 난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 출근을 할 때면 전쟁터에 나가는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서곤 했다. 오늘은 또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고민하다보면 머리가 아파 포기하고 멍하게 병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우리 병원은 다른 학교 출신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서 해마다 한 두명씩은 CMC와 상관없는 선생님이 들어온다.

나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인턴수련을 마치고 1년을 쉬고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을 결정할때가 되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래서 보다 큰 환경에서 살아보라고... 당연히 나에겐 서울에서 수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었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그야말로 “서울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첨에는 병원구조부터 파악해야 했다. 초음파실, 방사선과 촬영실 및 판독실, 컴퓨터 촬영실, 혈관 촬영실, 임상 병리와 등등.... 1년차의 업무가 발로뛰는 몸동아리로 버티는 일이었기에.. 무엇보다 힘든건 사람사이의 관계로 선후배가 없어서 환자의뢰(consultation) 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각과의 특성을 파악 못해 일이 꼬여서 밤늦게까지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던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제는 비뇨기과의 한 전문의로 그리고 가톨릭 의대의 staff로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책임감도 더 커지고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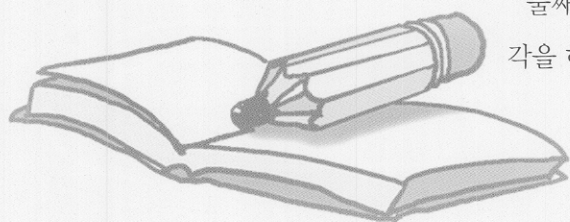
후배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첫째, 적극성이다. 환자에 대한 적극성, 공부에 대한 적극성, 배우려고 하는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회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기회를 잡을수도 놓칠수도 있다.

둘째, 환자에 대한 애정이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내가족, 내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야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환자에게 소홀해지고 환자나 보호자와 시비가 붙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

셋째, 환자 case를 볼때면 chart 없이 먼저 flow sheet를 나름대



로 작성해 보라. 진단과정이든지 상황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해서 내가 환자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chart를 먼저 보게되면 별 생각없이 규격화된 생각만 주입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공부를 해야한다. 그나마 우리과는 시간이 좀 나는 과이므로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자가 있을 때 그때 그때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역시 의사는 많이 알아야 하므로....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지면이 다되어(?) 가는 것 같다.

한사람의 전문의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교수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셨다. 개인적으로 특히 주임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처음 서울와서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나이들 어 늦게 레지던트하기 힘들지' 하실 때 모든 고민들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레지던트때 못했던 일들을 열심히 해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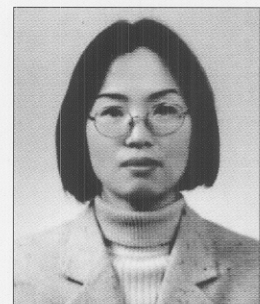
그리고 부끄럼없는 의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로 바란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보면서...

시커멓게 올라오는 연기와 완전히 타버린 지하철내부, 부상자를 옮기며 뛰어가는 사람들, 구조원들, 오열하는 가족들, 병원에 누워 있는 부상자들, 계속 방송되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명단을 보면서, 가장 먼저 대구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고, 괜찮다는 말에 사고당한 사람이 주위사람중에 없다는 사실이 안심 되었다.

불이 나면서 정전이 되고, 문이 잠긴 지하철 안에서 유독가스에 호흡곤란을 느끼며 숨이 막혀 올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가족이며 사랑 하는 사람 들이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숨막혀.. 엄마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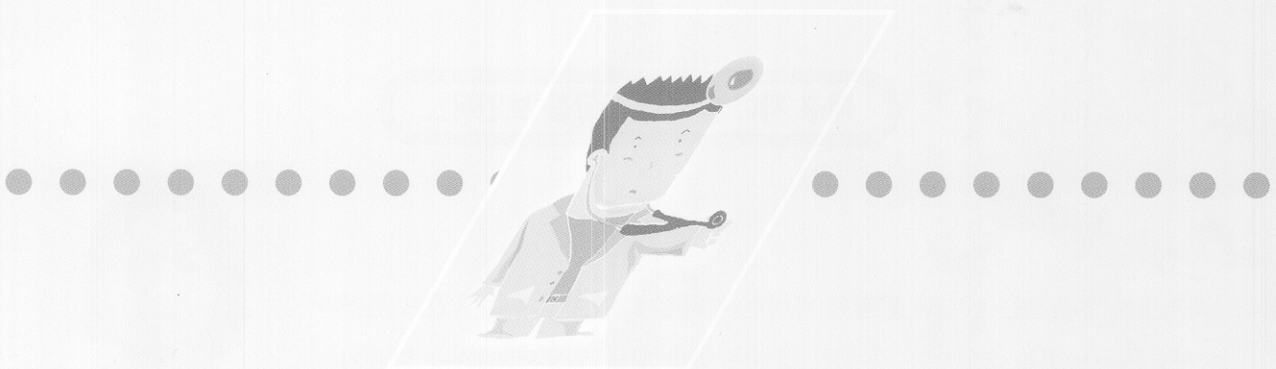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시신이 수십구가 넘고, 칠팔십 먹은 노인들은 없고 어찌 저렇게 젊은사람들만 갔느냐고 더욱 애통해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고 순식간에 부모 자식을 잃고 가족의 생사를 알지못해 동분 서주하는 가족들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히겠는가. 한 개인의 생각에서 이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뿐이다. 그 생각은 삶에 대한 비판 또는 세상에 대한 분노 아님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한 행동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다. 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평생고통을 가져왔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슬픔은 영영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김 명 완 간호사
강남성모병원 췌석실

살면서 단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일 경우도 많다. 이 사고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세상이 내 맘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 차라리 폭파 해 버리고 싶다고 느낄 때는 없었는가? 나를 괴롭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적은 없는가? 설마 지하철에서 불날일이 있을까? 설마 건물이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낱말들도 만들어 내는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사람의 생각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도 가져올수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을 전쟁에서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는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란것이 얼마나 대단한것인지 다시한번 기억하게 한다.

지하철 사고로 육체를 떠난 고귀한 영혼들이 평안한 안식을 찾길 기도하며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치유가 되고 그 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003년도 신입 비노기과 전공의

No.	이 름	출신학교	졸업년도	출생년	혼 인	KIM/NK	인 턴
1	이 준 하	가톨릭대	2002	1975	미 혼	NK	강남성모병원
2	류 기 영	가톨릭대	2002	1977	미 혼	KIM	강남성모병원
3	석 노 성	가톨릭대	2000	1975	미 혼	NK	성빈센트병원
4	양 조 환	원광대	2001	1969	기 혼	NK	성바오로병원
5	박 덕 진	부산대	1998	1972	미 혼	NK	부산대학교병원
6	최 현 섭	가톨릭대	2002	1976	미 혼	KIM	여의도성모병원
7	유 재 석	가톨릭대	2002	1977	기 혼	KIM	부평성모자애병원

2003년 가톨릭대학교 비노기관 전공의 근무표

2003년 1월 30일 발표

년 차	이 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류 기 영	강 남				의 정 부							
	유 재 석	강 남				부 평							
	최 현 섭	여 의 도				부 천				바 오 로			
	박 덕 진	의 정 부				여 의 도							
	이 준 하	수 원				강 남							
	석 노 정	부 평				여 의 도							
	양 조 환	바 오 로				부 천				강 남			
R2	임 재 균	강 남				수 원				대 전			
	김 효 신	여 의 도				대 전				수 원			
	임 승 혁	부 천				의 정 부				여 의 도			
	장 훈	수 원				여 의 도				강 남			
R3	차 승 훈	대 전				강 남				여 의 도			
	김 상 훈	부 평				바 오 로				강 남			
	하 유 신	여 의 도				부 평				의 정 부			
	선 인 철	강 남				여 의 도				부 천			
R4	황 보 경	강 남											
	윤 태 경	강 남											
	이 총 현	여 의 도											
	장 준	여 의 도											
	곽 경 민	의 정 부											
	정 지 학	부 천											

Conference Schedule

2003년 비뇨기과 1학기 수료

Date	Title	Contents	Speaker
3월 5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Lesson 23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art I Lesson 24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art II 회식	R4 이 지 열 R3 이 충 현 차 승 훈
3월 19일	Foreign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Lesson 25 Laparoscopic Renal surgery, Part I Lesson 26 Laparoscopic Renal surgery, Part II 강남, 부천	방사선과 R4 윤 태 경 R3 선 인 철
4월 2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Lesson 27 Primary retroperitoneal tumor.. Lesson 29 Peyronie's disease 의정부, 바오로	R4 한 창 희 R3 광 경 민 하 유 신
4월 18 ~ 19일	춘계비뇨기과학회		
4월 30일	Foreign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Impotence Lesson 30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Lesson 31 Role of nephrectomy in metastatic.. 수원, 대전	(성균관대) R4 이 성 원 R3 정 지 학 김 상 훈
5월 14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Lesson 32 The integration of surgery and.. Lesson 33 Penile cancer : Contemporary surgical.. 여의도, 부평	R4 김 준 철 R2 장 준 임 재 균
6월 4일	Foreign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Bladder Cancer Lesson 34 Long term Follow-up of hypospadias.. Lesson 35 Pediatric percutaneous urologic surgery.. 강남, 부천	(울산대) R4 안 한 종 R2 황 보 경 임 승 혁
6월 18일	Staff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Lesson 36 The use and misuse of antimicrobial.. Lesson 37 Male infertility best practices policy.. 의정부, 바오로	R3 서 흥 진 R2 차 승 훈 김 효
7월 2일	Foreign Lecture Resident Reading X-ray Reading	Lesson 38 Acute pyelonephritis in adults Lesson 39 Urologic problems in patients with 수원, 대전	(울산대) R3 주 명 수 R2 선 인 철 장 훈
7월 16일	2003년 1학기 case conference 회식		

■ Resident reading : AUA update 2002 XXI-Part II

■ Case conference : 2002.12.01 - 2003.07.13 퇴원기준. 형식은 예년과 동일합니다.